

美國의 이미지와 '미국 알기'

문학과 역사에 대한 두 목록의 접근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미국은 우리에게서 지금 새로운 변화의 과제에 있다. 미국이 한국사에서 변할 수 없는 우방이라는 것까지 삭제될리아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대학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제투쟁' 대상으로서의 미국은 그 끝마감이 어디에까지 갈지를 추정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감정을 떠나서도 일상적 감정의 문제들을 우리는 또 갖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무역통상 갈등이다. 그 실질적 이해와 관계없이 무역전쟁과제들은 우리의 미국에 대한 정서적 감정들을 변화시킨다. 또 하나는 이 근자에 상당히 진지하게 반성이 되고 있는 미국적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실은 너무나 늦은 반성이기도 하다. 우리의 평균적 국민문화 감수성이 어떻게 AFKN 프로그램 수준의 타임킬링용적 대중문화내용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은, 물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화적 책임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책임과 관계없이 이 문제가 자못 과제화되는 오늘에 있어서는 결국 이것도 미국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순탄케 하는 데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이제 미국것은 건어치워도 좋다는 감각적 태도에만 이 情況은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려 40년이 걸려서야 이제 겨우 미국을 바로보아야 할 것이라는 최초의 기본적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아직도 무엇보다 다시 보아야 할 것이냐에 항목별 정리를 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드디어 駐韓미군을 1만명선까지 감축시키자는 美상원 칼 레빈 동맹방위소위원장의 제의에까지 이른 이 시점에서, 도서목록으로써 미국을 아는 눈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 측면이나마 잠깐 거쳐서 지나가 볼까 한다.

미국 이미지의 두 측면 — 관념과 실제

우리의 미국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피상적인 이미지들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추상적 관념이고 또 하나는 생활양식적 실제의 수용이다. 그리고 이 관념과 실물수용의 사이에는 또 서로 상관된 연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계되어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적 삶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상태로, 그저 관념은 관념대로 실물은 실물대로 소유하

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한·미 수교 1백주년을 맞았던 1982년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미국에 대한 글들을 새로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미국인의 사고와 행동의 신념들은 무엇인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요약은 이렇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 평등 · 자유 · 개인주의 · 자립정신 · 인간의 존엄성 · 기회 · 변화 · 진보 · 기독교적 윤리관'들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관념 또는 신조 중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가장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헌은 「독립선언서」라는 결론도 있었다. (이때의 논의가 상당히 잘 집합되어 있는 책은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과 「미국인의 선택」 金鍾云 · 徐洸善편, 문학과 지성사, 1982이다.)

그러나, 구태여 다시 지적해볼 것도 없이 위의 미국의 가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게 있는가를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씁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는 일은 더욱 씁스럽다. 민주주의만 해도 이제 우리의 서점들에서 민주주의의 그 자체에 관한, 단지 논의적인 책마저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기도 하다. 모두 너무 잘 알아서 책같은 것이 필요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표제가 붙은 책마저도 시장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이 이해도를 설명해주는 것일 수는 없다.

그 반면 일상생활의 감각은 또 터무니없이 미국화돼 있다는 현상이 있다.

미국의 잡지 「에스콰이어」 편집자가 편집해 낸 책 중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 30인의 '미국의 위대한 것'에 관한 유쾌한 글 30편 짜리가 하나 있다. (미국 책제목은 「Mom, The Flag, and Apple Pie」, 1975. 이 책은 열화당이 「미국의 모든 것」이라는 책제로 1978년 譯刊한 바 있다.)

이 글들의 목록을 일별해 보자. 합중국(고어 비달), 총(레이 워리어드), 코카콜라(진 스탠포드), 사철탐정(마샬 프래디), 國旗(러셀 베이커), 어머니(그레 이스펠리), 애플파이(M. F. K. 피셔), 쇼핑센터(존 디디온), 복음전도자(윌리엄 마틴), 실행가능한 해결책(에드윈 뉴만), 보이 스카웃(해롤드 브로드키), 시골뜨기(제랄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지극히

피상적인 이미지들만으로 구성돼 있다.

안팎의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뒤늦게나마 미국을 바로보아야 한다는

최초의 출발점에 다시 서게

만들고 있다. 이제, 미국을 아는 눈은

어디에 있는가를 '도서목록'으로써

살펴본다.

나크맨), 졸업식 연설(존 스타인벡), 버본(워커퍼시), 자동차(해리 크루스), 텔레비전(앤디 워홀), 닭튀김(짐 빌라스), 위산과다증(아트 브크왈드), 카우보이 영화배우(마크 굿맨), 아버지(존 레오나르드), 코미디언(로버트 알란 오더), 야구(톰 위커), 이웃 식료품가게(유도라 윌티), 정신과의사(알렉산더 데루), 주차영화관(윌리엄 프라이스 폭스), 여선생(벌 밀러), 재즈와 듀크(코어든 파크스), 옥수수(줄리아 차일드), 주유소(막스애플), 명크코트(노라 에프론)

이 목록에서 우리는 우선 서로 상반된 두가지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삶의 감각과 감성을 그 대상항목으로서만 보면 거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실행가능한 해결책」과 「주차 영화관」만이 낯설 뿐이다. 그런가 하면 또하나, 이 글들을 쓴 작가들을 거의 다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단지 여기서는 '존 스타인벡'과 '앤디 워홀'만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앤디 워홀'도 실은 글로써보다는 영화분야로써 일부의 독자들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야기가 많이 빛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 의존해 살아왔다는 생각 속에 있으면서도 미국을 실질적으로 아는 데에는 너무도 게을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미국을 보다 깊이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나 지향은 우리 사회의 의식 속에 별로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사상도 실제로는 몇몇의 제한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해서만 수용돼

있다.

찰스 퍼스, 헨리 제임스, 존 듀이, 하비 콕스, 존 롤스, 데이비드 리스먼, 토크빌 정도가 앞에 적은 「미국인의 선택」에서도 언급된 이름들이고, 이책이 특별히 '미국의 현대 사상가들'로 개별적으로 언급한 명단도 다음 6인 뿐이다.

존 듀이, 라인홀드 니버, 에릭 호퍼, 찰스 버드, 마가렛 미드, 갈브레이드, 헨리 도로가 그들이다.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품

따라서 이제부터나마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미국 알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 제기를 위해, 여기에 우선 두개의 목록을 제시해 보려 한다.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 비평가 3인인 R.W.B 루이스, 클리언스 브룩스, R.P. 워렌이 1973년에 공편했던 「미국문학선집」에서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작품'이라고 예시했던 9편의 작품목록이다.

- 나다니엘 호든 「주홍글씨」
- 허만 멜빌 「모비 딕」
- H. 제임스 「숙녀의 초상」 「使者들」 「비둘기의 날개」 「황금주발」 중 1작품 선택
-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 S. 크레인 「용기의 붉은 훈장」
- T. 드라이저 「미국의 비극」
- 스코트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 어네스트 헤밍웨이 「해는 다시 떠오른다」 혹은 「무기여 잘 있거라」
- 윌리엄 포크너 「소리와 분노」 「8월의 빛」 「압살롬, 압살롬」 중에서 1작품 선택

이 편자들은 위 작품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단계의 목록을 또 첨부한다.

- F. 쿠퍼 「레더스토킹 연작」
- H.B. 스톤 「톰 아저씨의 동나무집」
- W. 하우엘즈 「사이러스 램햄의 출세」 혹은 「벼락부자의 위험」
- S. 루이스 「신작로」 혹은 「베비트」
- T. 울프 「천사여 고향을 돌아보라」 혹은 「시간과 강에 관해서」



도스패소스 「USA」

- N. 웨스트 「孤獨嬢」 혹은 「메뚜기의 날」
- J. 패럴 「스터즈 로니건」
- 존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 R. 라이트 「흑인의 아들」

이 목록들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목록에서도 역시 우리의 수용과 그들의 가치기준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마크 트웨인에 있어서도 「톰 소여」보다는 「허클베리 핀」이 우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 S. 크레인이나 W. 하우웰즈, J. 패럴 등은 전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외국문학수용에 있어 어느 외국이나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번역당사자가 자신의 기호에 의해서만 이루어 온 것이 우리의 외국문학수용이라는 문제를 이제는 보다 포괄적으로 종합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미국문학은 이즈음 통칭 하이틴소설이나 베스트셀러 대중문학소설 중심으로만 그 수용이 더 넓게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알기의 문학목록이 우리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美國史 서술의 여러 시각

또 하나 제시해두려는 목록은 美國史알기의 분야이다. 우리의 독서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 「미국사」는 이상하게도 프랑스인이 쓴 것이다. 앙드레 모르와의 「미국사」가 그것인데, 물론 이 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史書야말로 그나라의 정신과 관점에서 보다 진지한 역사적

고찰과 그 고찰들의 객관성을 얻기 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읽어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미국사에 관한 번역된 것으로서 추천할 만한 객관적 목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서 데이비드 노블(David.w. Noble)의 좀 특별한 美國史論을 소개해 보려 한다.

- 그의 저서 「역사를 저버린 역사가들」(Historians against Histo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5)은 「미국사 서술에 있어서의 프론티어 테제와 국민적 言約」(The Frontier Thesis and the National Covenant in American Historical Writing Since 1830)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프론티어정신을 비롯한 미국사상의 주제와 그 파악이 미국사 서술에 있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추적하며 미국史家들의 서술에 대한 평가적 체계화를 찰스 베어드(Charles A. Beard) 칼 베커(Carl Becker) 버논 루이스 패링턴(Vernon Louis Parrington)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Boorstin)

미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퓨리탄 정신에 입각한 聖書의 言約思想이다. 이들은 유럽史的 유형에서 벗어나, 미국만의 민족적 언약이 미국의 땅에 주어졌으며 이것은 미국만의 민주주의라는 無歷史性的의 자연적 프론티어라고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 관점에서 성서적 언약사상과 제퍼슨의 자연적 언약사상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기초를 놓은 것이 뱅크로프트이다. 그래서 저자는

뱅크로프트를 '자연과 언약의 성취'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터너는 이 언약이 상실됐음을 주장한 史眼으로, 그리고 베어드는 다시 이 언약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제도적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이해한 史家로 평가된다. 그리고 패링턴은 국민적 언약이 사라짐에 대한 哀歌의 시각에, 부어스틴은 그러나 이를 지켜야 한다는 保守의 시각에 각기 탁월한 저술들을 남긴 사람으로 정리된다. 마치 미국사는 노블에 의해서 가장 현대적인 시지프스의 운명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한 감각으로 새롭게 드러난다.

이들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유럽적 전통인 부패·불평등·특권·계급적 갈등을 벗어나서 미국사의 노력인 자연성·순결무구성·자연적 단순성을 어떻게 추구해 왔으며, 또 이 과정에서 상공업의·기계·산업주의·동부의 귀족성들에 의해 어떻게 그것이 좌절과 회복의 순환을 겪어 왔는가를 이해할 시도한 책이다.

따라서 이 책에 언급된 저술가와 그 저서들을 일별하면, 미국사만이 아니라 미국사상사와 문화사까지도 그것을 읽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의 기초자료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우선 그가 다루는 저술가들은 다음과 같다.

- 조지 뱅크로프트(George Bancroft)
 - 프레드릭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
-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사에 관한 저술목록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물론 역사가와 사상가들의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독자의 권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他國의 것일 때는 물론 외국인 그 누구의 권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미국의 역사는, 지금 미국에 대해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말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의무의 것으로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미국사에 접근하는 몇 학자의 저술 목록을 정리해 둔다면 다음과 같다.

- ▲ 조지 뱅크로프트 「美합중국의 역사」(History of the

- United State I-IX)
- ▲ 프레드릭 잭슨 터너 「美國史에서의 프론티어」(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 ▲ 찰스 베어드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 「현대미국사 1877-1913」(Contemporary American History, 1877-1913) 「근대 유럽의 발전」(The Development of Modern Europe, James H. Robinson과의 공저)
- ▲ 칼 베커 「뉴욕주의 政黨史」(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rovince of New York, 1760-1776) 「超然성과 역사서술」(Detachment and the Writing of History)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험」(Our Great Experiment in Democracy) 「18세기 사상가들의 天上의 都市」(The Heavenly City of the Eighteenth Century Philosophers)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 버논 루이스 패링턴 「미국사상에서의 주요 思潮들」(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 1권: 「식민지시대 정신」(Colonial Mind) 2권: 「미국에서의 낭만주의혁명」(The Romantic Revolution in America) 3권: 「미국에서의 비판적 현실주의의 발생」(The Beginning of Critical Realism in America)
- ▲ 다니엘 부어스틴 「토머스 제퍼슨의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 of Thomas Jefferson) 「미국인들: 식민지 체험」(The Americans: The Colonial Experience) 「미국정치의 眞髓」(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

이 목록의 책들은 물론 한권도 우리에게 譯刊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책들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지면이 없는 것도 아쉽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고뇌와 고통을 조금은 더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